

박주영 선제골·PK유도…서울, 4년만에 K리그 선두

올시즌 2번째 선발출전 4연승 견인

FC서울이 4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로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6' 선두로 나섰다.

서울은 13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클래식(1부리그) 5라운드 광주FC와의 원정경기에서 선제골을 넣고 결승골로 연결된 페널티킥(PK)까지 얻어낸 박주영(31)의 활약을 앞세워 2-1로 이겼다. 4승1패, 승점 12의 서울은 전남

드래곤즈와의 홈경기에서 득점 없이 비긴 성남 FC(3승2무·승점 11)를 따돌리고 선두로 도약했다. 서울은 2012년 K리그 우승 이후로는 단 한 차례도 리그 선두에 오른 적이 없었다.

박주영이 일등공신이었다. 클래식(1부리그)에선 이날 올 시즌 2번째 선발출전을 기록한 박주영은 전반 18분 광주 골키퍼 최봉진의 던지기 실수를 틈 타 고광민의 패스를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 39분에는

침투 패스를 받기 위해 페널티지역 안으로 쏘아
하다 광주 수비수 김영빈의 태클에 걸려 넘어지
며 PK를 얻어냈다. 아드리야노가 이를 침착하
게 성공시켰다. 박주영은 후반 38분 윤준태와
교체돼 벤치로 물러날 때까지 서울의 공격을 지
휘했다.

경기 후 박주영은 "원정 2연전이다 보니 이동 시간 등으로 힘들었다.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경기를 준비한 덕분에, 위기도 있었지만 귀중한 승점 3을 얻었다"며 만족스러워했다. 이어 "골을 넣은 것은 상대 실수가 동반됐다. 고광민이 재치 있게 잘해줬다. 운도 따랐다"고

말했다.

박주영은 올해 초 루트가 좋지 않아 동계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하지 못했다. 경기를 치르면서 몸을 끌어올리고 있다. 그는 “80% 이상은 올라간 것 같다. 경기에서 주어진 시간 안에 체력적인 부분 등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루트가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지난해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움직일 때도, 스피드를 붙여 뛸 때도 작년보다 괜찮다. 잘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프지 않고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광주 |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FC서울 박주영이 13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K리그 클래식 5라운드 광주FC와의 원정경기 전반 18분 선제골을 뽑은 뒤 환호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불만대장’ 이승엽…불혹이 더 아름다운 이유

최다 홈런에 최다 타점 도전하면서도
찬스에서 예전만 못하다 불만투성이
목표는 언제나 3할 30홈런 100타점
최고를 만드는건 끊임없는 도전 열정

삼성 이승엽(40)은 KBO리그 통산 가장 많은 홈런(121경기까지 418홈런)을 친 타자다. 한·일 리그 통산 600홈런까지 23홈런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 이승엽이 올해는 개인 통산 최다 타점에 도전한다. 그는 12월 들어 NC전에서 1300타점을 달성하면서 양준혁이 가지고 있는 개인 통산 최다타점(1389개)까지 단 89개만을 남겨뒀다. 90타점을 올리면 중심타자로서 명예훈장과 같은 홈런과 타점에서 리그 최고 반열에 오른다.

이승엽의 위대한 도전에 많은 이들은 박수를 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담담했다. 그는 13일 NC전을 앞두고 짜채진과 그 만나 "솔직히 (통산) 타점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며 "한 시즌에 어렵지만 타율 3할~30할~100타점을 올리면 최고의 타자니까 그 생각만 하고 지금까지 왔다. 홈런을 치다보니 타점은 (기록이) 따라온 것 같다"고 겸손하게 말했다.

기록이 말해주듯 이승엽은 찬스에 강한 타자였다. 늘 결정적 순간 한 방을 터트리며 팀에 승리를 안겼다. 불혹의 나이에도 클러치능력은 여전하다. 올 시즌 9경기에서 9타점을 올리며 전재함을 앞섰다. 그러나 이승엽은 자신의 타격에 불만이 더 많다. 그는 “첫연재는 찬스가 오면 마음먹은 대로 해결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안 그렇다”며 “지금이 최고가 아니지 않나. 정말 좋았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만족이 아니다. 만족해서도 안 된다”고 고개를 저었다.

이승연은 완벽하지만 더 완벽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다. 올 시즌도 다각 기술에 변화를 주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그는 “배 경기, 배 타석 연습은 하고 있는 데 완벽하지 않다. 편하지 않고 맞지 않는 새 옷을 입은 느낌”이라며 “날씨가 더워지고 계속 스윙을 하다보면 편잡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타격 자세도 그렇고, 스윙도 맘에 안 들어. 회전을 이제 해볼까 생각하고 있다, 배트가 처지면 안 되니까 그것도 고민한다”며 불평을 늘어놓기 바빴다. 그는 “지명타자니까 생각할 시간이 많아서 그런 것 같다”며 웃었지만, 얼마나 치열하게 자신과 싸우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남다른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이승엽은 팀에서 가장 먼저 야구장으로 출근하는 선수다. 낮 12시쯤 구장에 나와 웨이트트레이닝이나 머신을 하면서 경기를 대비한다. 그는 “뛰고 뛰고 하고 웨이트트레이닝도 하지만 요즘은 치료를 많이 받고 있다”며 “지명타자로 나가서 전력 문제는 없는데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니 잘 쉬려고 한다. 야구장에 일찍 나오는데 이유는 구장에 나와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승엽은 당대 최고의 타자다. 그러나 그가 진짜 대단한 이유는 최고의 자리에서도 만족하지 않고 발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최고를 향한 그의 도전이 더 아름답다. **대구 |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라이언킹’ 이승엽(삼성)이 개인 통산 최다타점에 도전한다. 양준혁(은퇴)이 갖고 있는 최다 기록(1389개)에 단 89개만을 남겨뒀다. 그러나 기록도전보다 더 돋보이는 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승엽의 자세다.

슈틸리케 “이란 원정 부담”

월드컵 亞최종예선 A조...최근 맞대결 3패



2018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의 조 편성이 확정됐다. 우리 슈틸리케(62·사진)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은 12일 말레이시아 칼라룸푸르에서 진행된 최종예선 조 추첨식을

참관한 뒤 1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한국은 이란을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중국, 카타르, 시리아와 함께 A조에 편성됐다. 조 추첨 결과에 대해 슈틸리케 감독은 “A조 구성이 B조보다는 낫지만, 큰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월드컵 본선 직행을 위해선 최소 2위를 차지해야 한다.

A조에서 가장 경계할 상대는 아시아 정상급인 속전이다. 이란은 전통적으로 한국에 강세를 보였다. 한국은 최근 10년간 이란과 10번交手(1승4무5패)에 그쳤다. 2014년라질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에서도 이란에 2번 모두 패했고, 슈틸리케 감독 취임 이후 치른 평가전(2014년 11월 18일)에서도 0-1로 지는 등 한국 3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발목을 잡혔다. 특히 이란 태페만 아자드 스타디움은 한국에 악몽 같은 경기장이다. 한국은 이곳에서 6경기를 치러 2무4패를 기록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원정에서 감행 이란과 치르는 4차전(10월 11일)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선수들이 이란 원정에서 많은 배움을 가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슈틸리게 감독은 '경기력 유지'를 언급했다. 취임 당시부터 소속팀에서의 활약을 강조해온 그는 "선수들이 꾸준히 소속팀에서 뛰는 것이 (대표팀 경기력에) 매우 중요하다. 6개월 이상 소속팀 경기를 뛰지 못하는 선수를 대표팀에 발탁하기는 어렵다. 7~8월 유럽 이적시장에 열려는데, 소속팀 경기를 뛰지 못하는 몇몇 선수를 찾아(소속팀) 경기를 꾸준히 뛰게 있어 반란을 초월해 결정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각 포지션에 어떤 대체선수들이 있는지에 따라 대표팀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 K리그를 많이 보고 있다"며 K리그수들에 대한 적절한 관심도 드러냈다.

▶'위대한 여행자' 슈틸리게 2면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편집 |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프로축구 경기 결과 **〈13일〉** 수원W 수원삼성 **1 : 1** 포항 **전주** 전북 **1 : 1** 인천 **탄천** 성남 **0 : 0** 전남 **광주** 광주 **1 : 2** 서울 **서귀포** 제주 **4 : 2** 상주 **수원종합** 수원FC **1 : 1** 울산



라이나생명

김지영이 콕!
콕! 집어 추천하는 치아보험

라이나 THE건강한치아보험III(비갱신형)

전통 드라이버 + 칼 가위 5중세트
상환만 받아도! 무료증정!



(1인 1회 증정에 한함)

오르지않는 보험료에 보철! 충전! 신경·영구치 발거치료 까지!!

보장금액이 좋은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치료 보장

- 임플란트 100만원, 브릿지 50만원, 틀니 100만원(특약 가입시)
- 임플란트 50만원, 브릿지 25만원, 틀니 50만원(특약 미가입시)
- 임플란트, 브릿지는 영구치 발거 1개당 연간 3개 한도, 틀니는 보철당 연간 1회 한도 보장
- 가입 후 90일 경과 이후 영구치 발거 후 그 자리에 치료 시 장액 보장, 2년 이내 지급 사유 발생 시 50%
- 56세~70세 고객은 보철치료보장특약에 가입할 수 없음

재료 상관없이, 개수 제한 없이 때우는 충전치료 보장

- 금, 세라믹 12만원, 레진 5만원, 아말감 1만원
- 가입 후 90일 경과 이후 장액보장, 1년 이내 지급사유 발생 시 50% 보장

금 등으로 덮어 씌우는 크라운치료 보장

- 크라운치료, 20만원, 유치·영구치 각각 연간 3개 한도 보장
- 가입 후 90일 경과 이후 장액보장, 1년 이내 지급사유 발생 시 50% 보장

자주하는 치수치료(신경치료), 영구치 발거치료도 보장

- 치수치료 2만원, 영구치 발거 시 2만원, 유치·영구치 각각 연간 3개 한도 보장
- 가입 후 90일 경과 이후 충치나 잇몸질환 치료 시 장액 보장

보장을 다 받아도 만기 시 만기자급금 20만원 지급!
(만기 생존 시)

5세~70세까지 온 가족 가입 가능

※ 위 보장 내용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원인으로 발생한 치료에 한해 보장합니다.

080-797-7700

24시간 무료상담 및 문의
지금 전화하세요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6-00285호(2016.02.02)

[보험료 예시표]

구분	남자	여자
30세	26,200원	23,150원
40세	36,100원	29,450원
50세	53,150원	44,200원

*기준 : 가입금액 주계약 4,500만원 / 보철치료보장특약 5,000만원 / 보철기간 : 10년만기 / 납입기간 : 전기간월납 / 만기지급형

[해지환급금 예시표]

결과기간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해지환급금	환율률
1년	433,200원	0원	0.0%
3년	1,299,600원	0원	0.0%
5년	2,166,000원	111,355원	5.1%
10년	4,332,000원	200,000원	4.6%

*기준 : 납입 40세, 가입금액 주계약 4,500만원 / 보철치료보장특약 5,000만원 / 보철기간 : 10년만기 / 납입기간 : 전기간월납 / 만기지급형

*0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 본 상품은 10년만기 비갱신형 상품으로 전기간월납, 만기자급형이며,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초과, 진단계약, 보험기간 1년 미만 계약 또는 전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경우 청약철회 불가 *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불이행, 청약서에 지필 서명 또는 전자 서명을 아니한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 취소 가능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현재 또는 과거의 질병 치료 사실 등 계약 전 알릴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음 *기준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금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보험계약과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람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